소설가 문순태씨가 전문서적들과 문학전집, 소설, 시 등 장르를 불문한 수천권의 책이 가득찬 담양 생오지 창작촌에서 자신의 작품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내 인생 바꾼 '분노의 포도'…민중의 恨 눈 떠"

〈존 스타인벡 소설〉

세계문학전집 접하고 의대 진학 약속 못지켜

영감 얻으려 비소설 읽고 후배들 작품은 필독

명사의 서재

❹ 소설가 문순태

문학을 공부하고픈 후배들을 위해 사재를 털어 문예창작촌을 설립한 소설가 문순태(75).

퇴직 후 작품활동에 몰입하기 위해 2006년 고향인 담양군 남면 생오지 마을에 돌아온 문 작가는 후학양성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올해 자신만의 문예창작촌을 재단법인으로 전환시켰다. 매주 100명이 넘는 문예창작대학 수강생들이 찾아오는 '생오지 문예창작촌'은 문 작가의 서재이자 집필실이자 창작활동에 영감을 주는 곳이다.

소설가의 서재는 다양했다. 강의실을 겸하고 있는 1층 서재에 꽂혀 있는 책은 장장 7000여권. 시와 수필, 소설은 물론, 수십권의 사전들, 사회·인물과학, 식물·동물도감, 고대선박사, 고대의상사 등 전문서적까지 장르를 불문한다.

이 가운데 의사가 될 뻔 했던 그를 작가의 길로 인도한 책은 미국을 대표하는 희곡작가 존 스타인벡이 쓴 소설 '분노의 포도'다.

"처음으로 읽었던 소설이 바로 '분노의 포도'였지요. 고3 시절이었는데 선배에게 빌려 읽었어요. 감동을 꽤 받았습니다. 부친께 책을 사달라고 졸랐어요. 당시 부친께서는 제가 의대에 진학하기를 희망하셨는데, 책을 사주면 의대에 가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집은 가난했지만 부친께서는 당시 값이 꽤 나갔던 세계문학전집 32권짜리를 사주셨습니다. 아마 빚을 내고 사주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전집을 읽고 오히려 공부를 더 하지 못하게 됐고 결국 아버지와 약속했던 의대는 가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셨다고 생각하셨을 테지요."

작가 존 스타인벡은 문 작가와 많이 닮았다. 어쩌면 오히려, 문 작가가 존 스타인벡의 삶을 닮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문 작가가 설명하는 존 스타인벡은 한 번도 고향을 떠나지 않고 고향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 작가였다.

'분노의 포도'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산업자본주의가 대두되던 시기의 미국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농토를 잃고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던 시절, 농업의 근대화 과정을 다룬 소설이다.

"'분노의 포도'에 담긴 미국 농촌의 현실이 우리네 현실과 닮은 점이 많아요. 책을 통해 가족사랑과 인간 사랑의 정신을 배웠지요. 저 또한 농촌을 배경으로 한, 민중의 한(恨)이 담긴 작품을 쓰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은 최수철의 '침대'다. 사람이자 요람, 관으로 살아온 침대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소설이다.

그가 책을 고르는 기준은 딱히 까다롭지는 않다.

"소설가가 책을 많이 읽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비소설의 경우 작품 쓰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읽어요. 다음으로는 작가들 사이에 평이 좋았던 소설들을 찾아 읽고, 가능한 지역 작가들의 작품은 읽도록 노력합니다. 제자나 후배들의 작품을 읽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문 작가에게 가장 애착이 가는 본인의 작품을 물었다. 단연 '타오르는 강'이었다.

"많은 이들이 문순태의 대표작으로 '징소리'나 '철쭉제'를 꼽습니다.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실려 더욱 그러는 거 같아요. 모든 작품들이 다 자식처럼 소중하지만 '타오르는 강'은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지요. 저의 문학적 역량을 가장 많이 쏟은 작품이고, 내 정서에도 가장 맞는 작품입니다. 전라도 토박이 말을 가장 많이 구사하고, 가장 오랜시간이 걸려 완성된 작품이기도 하지요. 작가 문순태의 문학을 총정리한 책으로 보면 됩니다."

일흔을 훌쩍 넘은 나이에도 창작활동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문순태 작가는 현재 소쇄원을 소재로 소설을 집필중이다. 그동안 간간히 써온 시들도 모아 시집도 펴낼 생각이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내 마음의 보석상자

뉴욕에서 가장 많은 현대미술품을 소장한 주인공은 팔순의 허버트 & 도로시 보겔(Herbert and Dorothy Vogel)부부다. 이러면 십중팔구 재력가를 떠올리기 쉽지만 허버트는 전직 우편배달부이고 도로시는 도서관 사서 출신이다.

그렇다면 보겔부부가 뉴욕에서 알아주는 컬렉터가 된 비결은 무엇일까? 다름아닌 '예술에 대한 애정' 이다. 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부부는 시간만 나면 갤러리들을 돌아다녔다. 1962년 미술관에서 만난 두 사람은 금방 '마음이 통해' 결혼을 했다. 맨하탄의 한 임대아파트에 둥지를 튼 부부는 '컬렉터가 되기 위한 생활수칙'을 세웠다. 작품구매 기준은 우체부 수입 한도내에서, 또 작은 아파트에 둘 수 있는 소품으로 정했다. 그러다 보니 빠듯한 허버트의 월급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건 무명작가들의 작품이었다.

아파트 임대료 내기도 벅찼지만 부부의 '사치'는 계속됐다. 두 사람은 컬렉터 이전에 큐레이터의 눈으로 작품을 골랐다. 작업실을 방문해 작품을 둘러보고 구입했다. 또 정기적으로 작가에게 연락해 어떤 작품을 새로 시작했는지 등을 물었다. 부부의 '잔소리'를 들은 솔 르위트, 척 클로스는 오늘날 작품가격이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거장이 됐다.

지난 40여년 간 부부가 모은 컬렉션은 모두 4800여점. 이젠 누구나 부러워하는 큰손이지만 생활은 여전히 궁핍하다. 20여년 전 구입한 초록색 재킷은 허버트의 단골 외출복이다.

하지만 지난 2008년 부부는 소장품 가운데 1000점을 자신들의 신혼여행지였던 워싱턴 국립미술관에 기증했다. 이유는 단 하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감상하고 싶어서였다. 두사람의 감동 스토리는 다큐 '허브 앤 도로시'(2008년)를 통해 알려졌다.

최근 광주에서도 오랫동안 소장해왔던 미술품을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뜻깊은 문화나눔이 열렸다. 광주지역 미술품 소장가들이 주축이 된 화광회의 '내 마음의 보석상자'전(23~29일 대동갤러리)이다. '화합하는 광주'라는 뜻을 지닌 '화광회'는 지난 2010년 광주일보와 (사)광주미술관회가 기획한 일본 나오시마 지추미술관 탐방을 계기로 결성된 모임으로 지역에서 소장가들의 애장품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들 출품작 가운데에는 의재 허백련의 '광명정대', 남농 허건의 '송'(松), 고 오승윤 화백의 초기작인 '해녀' 등 평소 접하기 힘든 '보석'들이 포함됐다. 화광회의 뜻이 통했는지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얼굴에선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보통 컬렉터라고 하면 돈많은 사람들의 재테크로 여기는 분위기가 강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화광회의 전시회는 미술품 소장가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진정한 컬렉터의 미덕은 많은 사람들과 컬렉션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편집부국장 겸 문화선임기자〉

龍과 女人

박소빈전 다음달 9일까지 상록전시관

연필 한 자루로 용과 여인이라는 소재를 대형 작품에 녹여내는 작가 박소빈씨가 3년 만에 광주에서 개인전을 연다. 지난 5년간 미국 뉴욕과 중국 북경에서 활동을 중간결산하는 자리다.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제8회 청년작가 박소빈씨 초대 '용 사랑 꿈'전. 박씨는 구례 화엄사에서 기둥을 타고 오르는 용을 보고 용을 모티브로 한 작업을 시작했고, 영주 부석사 의상과 선묘의 슬픈 사랑이야기를 모태로 작품세계를 확장시켰다. 작품의 모티브인 용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설화의 소재로 등장한다.

박씨는 뉴욕 브루클린 보스 스튜디오,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센터, 중국 북경 포스 스튜디오에 입주해 창작활동을 하며 중국, 독일, 뉴욕에서 전시했다.

전시작은 연필 드로잉 흑백 대작과 함께 혼합기법으로 제작해, 색상이 강렬한 작품들이다. 전시는 다음달 9일까지다. 문의 062-513-5391.

/김경인기자 kki@

'The deep dream'

무라카미 하루키 신작 선인세 17억원?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 장편소설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가제)의 국내 판권이 민음사에 돌아가면서 선인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루키가 3년 만에 내놓은 이 소설은 일본에서 발간 6일 만에 발행 부수 100만 부를 기록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화제작.

민음사는 27일 "구체적인 제안 내용과 판권 금액은 공개할 수 없다"며 함구했지만 국내 출판업계 관계자들은 선인세가 16억 원은 훨씬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선인세로 1억5000만엔(약 16억6000만원) 이상을 제시하고도 떨어진 출판사가 있다고 전해들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